

교회목표

- 1. 천국시민 양성
- 2. 만민에게 전도
- 3. 빈약한 자 구제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요한복음 11장 40절)

# 순례자

2007년도 표어

교회여 진리의 빛으로 다시 서라  
-민족을 깨우는 우리교회 (사 51:17, 롬 13:11)

행동지침

- 1. 세계 복음화
- 2. 교회 천국화
- 3. 문화 기독교화

† 발행인 : 이 중 윤 † 발행처 : 대한예수교 장로회 **서울교회** 서울시 강남구 대치동 210 전화:(02)558-1106 팩스:(02) 558-2107 www.seoulchurch.or.kr



## 생명보다 귀한 인자

(시편 63:1-11)



이중윤 목사(서울교회 담임)

**다윗은 곤고한 오늘의 현실을 타기보다 오늘의 곤고함 중에서도 밝은 내일을 만드며 산 사람입니다.**

교회 안에는 그리스도를 따른다는 이름만 가진 신자가 있습니다. 소위 Nominal Christian이 그들입니다. 이들은 마치 기름도 준비하지 않고 신앙을 기다린다고 빈들만 들고 있는 미련한 다섯 처녀처럼 신앙 되신 예수님이 누구신 줄 모르는 이들입니다. 그런가 하면 그리스도를 따른다고 하면서 베드로처럼 멀찍이 서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폭풍이 일어나 먹구름이 덮여도, 괴롭고 슬플지라도 주님을 기뻐하고, 주님과 계속 교제의 삶을 사는 이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고 믿기 때문에 하나님으로 만족하고 그를 갈망하며 하나님의 보호를 감사하며 살아갑니다. 다윗이 바로 이와 같은 사람입니다.

다윗의 삶 가운데는 비록 실수가 있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전 생애를 통해 하나님을 갈망했고, 하나님으로 만족했으며,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다윗은 사울 왕으로 인해, 또 아들 압살롬의 반역으로 두 차례 광야 생활을 한바 있습니다. 아마도 본편은 후자의 경우일 것입니다. 다윗은 압살롬으로부터 생명의 위협을 당하고 있을 뿐 아니라 자신이 그토록 사랑하는 예루살렘 성전을 떠나 광야를 헤매면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성소를 그리워하고, 영혼이 주를 갈망하는 안타까운 심정을 표현했습니다. 그러면서도 그 위협과 곤고한 중에서도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능력 많으신 하나님은 왜 우리를 이토록 괴로움에 내버려 두십니까? 다윗에게 고통의 날들이 없었다면 수많은 시편이 기록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또 모세에게 광야 40년이 없었다면 가나안의 영광은 없었을 것입니다. 기쁨과 승리를 위해서는 그에 비례하는 수고와 고통, 그리고 희생이 있어야 합니다.

### 1. 광야를 성소로 만들게 하신 하나님 사랑을 감사(1-4절)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1절).

아들의 반역으로 왕궁에서 쫓겨난 다윗의 심정은 황망하고 메마르기 그지없었습니다. 그랬기에 다윗의 기도는 더욱 간절했습니다. 성소가 없는 광야였지만 다윗은 전에 성소에서 하듯 하나님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해 손을 들고 기도했습니다(2절). 주님의 사랑이 생명보다 귀한 것으로 알았기 때문에 그는 광야를 성소로 만든 것입니다. 간절한 기도와 찬양이 있는 곳, 그곳이 곧 성소인 것입니다.

우리는 환경과 조건을 탓하지 말고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을 갈망하는 성도가 된 것을 감사해야 됩니다. 곤난 중에서도 찬양과 기도를 드리는 믿음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됩니다.

‘찾는다’는 동사는 새벽(dawn)이라는 명사에서 유래하며 일찍이 찾는다, 또는 열심히 진실로 찾는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63편을 ‘아침의 시’라고도 부릅니다.

### 2. 역경 중에서 하나님으로 만족케 하신 하나님 사랑을 감사(5-8절)

다윗은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알지 못했지만 하나님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의 뜻을 이미 알고 실천한 사람입니다.

다윗은 전날 가졌던 화목제를 회상했습니다. 지금은 광야에서 제단도 없고 제사장도 없으므로 황망하기만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밤하늘의 별을 바라보면서 침상에 누워 주님 생각을 하며 감사했습니다(6절). 지난날의 은총을 생각하다가 과거의 보호는 미래의 보장이라는 확신으로 감사가 더욱 커져 주님의 크신 품안에서 보호받는 기쁨을 맞춥니다(7-8절). 다윗은 마치 제단 아래서 기름진 화목제물을 먹는 듯한 충족감을 경험하며 황무지를 제단으로 바꾸었습니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으므로”(3절), ‘인자’는 언약을 주신 사랑을 말합니다. 여기서의 사랑은 히브리어로 ‘케세드’라고 하며 하나님의 선택적인 사랑을 의미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인자가 자기 목숨보다 더 귀하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신실성, 불변성은 생명보다 귀하다는 것입니다.

“누가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으리요...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롬 8:35-39).

이같은 하나님의 사랑을 두고 우리는 다른 것에서 만족을 얻으려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언약 사랑의 샘물을 마신 다윗은 그 물로 영원히 만족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만족해 한 다윗은 하나님의 사랑을 다른 이들도 알기 원했습니다. 하나님의 자비와 도우심을 맞본 이들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뻐합니다. “나의 영혼이 주를 가까이 따르니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거니와”(8절). 하나님께 가까이 가기를 싫어한다면 하나님으로 만족하지 못한 연고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가까이 가면서 하나님 만나기를 기뻐해야 합니다.

### 3. 위험 중에서 보호해 주신 하나님 사랑을 감사(9-11절)

“나의 영혼을 찾아 멸하려 하는 그들은 땅 깊은 곳에 들어가며 칼의 세력에 넘겨져 승냥이의 먹이가 되리이다”(9-10절).

다윗은 황량한 광야를 성소로 만들고 삭막한 불모지를 제단으로 만들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그는 곤고한 오늘의 현실을 타기보다 오늘의 곤고함 중에서도 밝은 내일을 만들며 산 사람입니다.

그는 황량한 광야에서도 ‘주로 맹세하는’ 신앙을 지키며 하나님이 원수를 물리쳐 주시고 막으셨을 뿐 아니라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을 즐거워 할 것이라고 고백합니다. 산성이 되시고 방패가 되시고 피난처가 되신 하나님을 영원히 즐거워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고통 중에서 하나님을 찾게 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므로 하나님을 찾게 하신 하나님, 역경 중에서도 하나님으로 만족하게 하신 하나님, 뿐만 아니라 위험 중에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체롭게 하신 놀라우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는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 이중윤 목사 방송설교

- TV: 케이블 CH 42(기독교TV) 매주 월 오후 1시30분
- 위성 CH 412(CBS TV) 매주일 밤 9시(각 지역별로 케이블 TV로도 시청가능)
- KISB(코리아 위성방송) 제3채널(북중미 지역 해외방송) 매주 월 오후 1시30분(한국시간)
- 라디오: HLKY 98.1 MHz(기독교 방송) <성서강해> 매주 화 오전 5시30분
- HLKX 106.9 MHz(극동 방송) <생명은 빛으로> 매주 금 오전 9시

# 제32학기 목회자 신학세미나 준비

주제: 한국교회와 국가를 위한 리더십

9월3일(월) 오후 2시 101호 웨스트민스터 홀에서

오늘 가을에 시작되는 제32학기 목회자 신학세미나 준비가 시작되었다.

32학기 목회자 신학세미나는 연말에 있을 대선을 앞두고 주제를 '한국교회와 국가를 위한 리더십'으로 정하여 성경에 나타난 지도자들의 리더십을 배우

는 한편 대선후보들을 차례로 초청하여 그들의 비전과 국가발전에 관한 질의응답을 듣게 된다.

32학기 목회자 신학세미나가 은혜 중에 준비되고, 이 나라의 많은 교역자들이 참석하여 올바른 리더십을 가진 지도자들로 서도록 기도한다.

# 제7기 단기선교단 순례자의 집 창립예배 드린다

오늘(8월 5일)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로 파송된 제7기 단기선교단(단장 노문환 장로)이 긴 여정 끝에 이스라엘에 무사히 도착하여 현지선교사들을 도와 다양한 선교활동을 펴고 있다.

오늘(8월 5일)은 예루살렘에 순례자의 집(The Pilgrims' House)이라는 이름의 교회 창립 예배를 드린다. 복음에 빛진 자된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 있도

록 하나님의 섭리하심 가운데 현지인과 연합하여 창립예배를 드리게 된 것이다.

현지 선교사를 도와 다양한 전도활동을 펴고 9일 귀국하게 되는 단기선교단이 이스라엘에서 은혜 중에 선교활동을 마치고 안전하게 귀국할 수 있도록 기도한다.

# 서울교회 전도학교 제 30기 과정 수료식

오늘 찬양예배 시간에

이번 30기 과정에서는 이미 전도학교 정규과정을 수료한 전도자들을 대상으로 고급과정인 '변증론'을 공부하였다. 31기는 예전과 같이 정규과정으로 진행되며, 8월 28일(화) 오전 10시 603호에서 시작된다. 전도에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 30기 수료자 명단은 다음과 같다.

권영월 김규희 김미성 김수진 김숙자 김애자 김은순 김은희 남경희 남현주 박길희 박미경 박이선 박정임 성수영 양호경 양호선 옥희숙 우경해 위성남 윤계진 윤숙지 이경혜 이영미 이재순 이혜경 임명숙 장미자 정기자 최성희 홍성혜

# 2007년 2차 새가족 환영회

8월18일(토) 오후 5시 8층 만나홀

2007년 2차 새가족 환영회가 8월18일(토) 오후 5시 8층 만나홀(801호)에서 열린다.

이번 새가족환영회는 4월21일 이후 등록한 성도들과 서울교회에 등록된 후 새가족 환영회에 한번도 참석하지 못한 성도들을 대상으로 한다.

서울교회에 등록하는 모든 성도들이 잘 정착하여 주님의 신실한 증으로 자라도록 기도한다.

## 만민에게 전도-7기 이스라엘 단기선교단 보고

# 이곳은 예루살렘...

안녕하십니까. 서울교회 성도여러분 이스라엘 예루살렘에서 인사드립니다.

저희는 한국시간 7월 30일 오후 9시 45분 인천공항을 출발하여 중국 상해, 카타르 도하, 요르단 암만을 거쳐, 다시 버스로 갈아타고 요르단의 벤산 국경을 통과, 현지시간 7월 31일 오후 11시 (한국시간 8월 1일 오전 5시) 이스라엘 예루살렘에 도착했습니다.

이동시간은 카타르에서 8시간 대기를 합쳐 총 31시간, 시차는 한국보다 6시간이 늦습니다. 단원 모두의 상태는 매우 양호합니다.

현지 기온은 낮 최고기온이 35도를 넘나들지만, 건조한 기후와 예루살렘이 고원지대에 위치해 아직은 큰 어려움을 겪지 않았습니다.

이번 단기선교를 위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이동과정 중에서도 끊임없이 나타나, 카타르의 살인적인 더위에서도 큰 탈이 없었고, 아랍국가 중에서도 가장 안전한 요르단을 통과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까다롭고 복잡하기로 유명한 이스라엘 국경통과도 큰 어려움 없이 통과할 수 있었고, 당초 예상되었던 알렌비 국경이 아닌, 더 북쪽의 벤산 국경을 통과함으로써 가자지구를 거치지 않고 예루살렘에 입성 할 수 있었습니다.



저희는 현지선교사로 사역 중이신 두 분 선교사님의 인도를 따라 사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현지 시간 8월1일에는 이스라엘의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 예루살렘을 돌아보았으며, 이번 이스라엘 교회개혁의 중요 인사인 제이 크로니쉬 선교사님과 (정탐)설문조사내용 조정을 위한 회의와, 현지 기독교 지도자인, 메노 칼리셔 목사님을 만나 현지사역에 대한 간증과, 선교전략을 나누었습니다.

2일에는 히브리대학을 방문, 이번 사역의 중심에 있는 (정탐)설문조사를 현지 대학생들과의 나눔을 통해 가질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 저희는 벧 게울라 교회와 King of King 교회의 예배에 참석할 예정이며 주일에는 '순례자의 집' 개혁예배에도 참석하려고 합니다. 이곳 대학생들과의 만남을 통해 얻을 수 있었던 것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도 기독교에 대해 개방적이었다는 점입니다.

물론 아직도 보수적인 정통 유대교인이 30%를 넘고 있지만 세대가 거듭될수록, 나이가 젊을수록 그 잘못된 열심은 열어지고 있으며, 세습되고 있는 유대교신앙에 조금씩 의문을 던지는 이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물론 이런 의문이 곧장 예수님 영접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기독교에 격렬할 만큼 배타적으로 반응하던 예전의 모습에 비하면 많은 변화라고 생각됩니다. 단원 모두가 현지에 큰 문제점이 적었지만, 큰 기온차이와, 끊임없이 이어지는 일정이 남아있습니다.

이곳에서 큰 탈 없이 정탐과, 복음전파에 힘쓸 수 있도록, 우리를 위해, 이스라엘을 위해 기도해주시기 바랍니다.

제7기 단기선교단 일동



만민에게 전도 - 조남혜 선교사 인터뷰

#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역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순례자는 7월 중순에 잠시 입국하신 조남혜 선교사(방글라데시)와의 만남의 시간을 출국전에 잠시 가졌다. 선교사님의 근황과 진행중인 사역과 기도제목을 중심으로 다음과 같이 정리하였다.

## 1. 선교사님의 사역은 어떻게 진행 중이신지...

· Mother & Baby Care Center-마더 앤드 베비 케어센터(모자보건센터) 사역입니다.

모슬렘 남편들이 여러 번 결혼할 수 있는 종교법으로 엄마와 함께 버림받은 아기들을 (1-6세) 돌보는 사역입니다. 데이케어센터 형식으로 엄마들이 일할 수 있도록 아침에 센터에 맡겼다가 저녁 일 마친 후 아이를 찾아갑니다.

· 또 다른 사역은 서울 교회와 연합해서 하는 사역인 아사(소망)호스텔 학생 기숙사입니다.

모자보건센터에서 계속할 수 없는 종교교육을 그곳에서는 아이들이 자주 바뀌어 지속적으로 복음을 전할 수 없습니다. 그곳에서 호스텔에 들어오기를 원하는 무슬렘 배경의 아기들과 개종 후 주위의 핍박으로 아이들 교육을 제대로 시킬 수 없는 아이들에게 숙식 제공하면서 학교를 보내고 있습니다.

감사한 것은 숙식을 저희 소망 호스텔에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아이들에게 기도과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고 끝낼 수 있는 것입니다. 현재 10명이고 올 연말까지 20명이 됩니다.

· 세 번째는 여성 자택 예배를 인도합니다.(여성 가정예배)

모슬렘종교 특성상 여자와 남자가 같이 예배드릴 수가 없고 교회에 가서 예배드리는 것을 무서워하고 어려워합니다.

그래서 모슬렘 개종자를 위한 가정교회가 비밀리에 생기고 있는데 개종한 모슬렘 선생님과 막 다니기 시작한 개종 예정자를 위해 매주 예배를 인도합니다.

처음 4명으로 시작했는데 지금은 8-9명 정도가 매주 방글라데시 휴일인 금요일에 모여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 2. 선교사님의 기도제목을 말씀해 주시죠.

- 방글라데시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종교의 자유가 회복되고.(선교사님들의 안전) 주일이 회복되도록. (현재 금요일이 쉬는 날입니다)
- 소망 호스텔 아이들이 말씀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사랑을 알아 미래에 방글라데시의 어느 곳에 퍼져 살더라도 주님이 소망이 되게 하시고 그렇게 쓰임 받으도록...
- 매달 있는 호스텔 부모 미팅 및 예배시간을 통해 어머니들이 예수님을 영접하도록...
- 아이들이 호스텔과 학교에서 안전과 건강 그리고 직원인(주엘과 따라) 영적인 강건함 위해.
- 개종자들을 위한 안전한 예배처소를 위해.
- 저를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 담당하게 주님의 은혜와 감사로 감당하도록..
- 믿지 않는 저의 부모형제가 예수님을 믿도록 위해서도 기도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3. 마지막으로 서울교회 성도님들께 하고 싶으신 말씀이 있으시다면...

어려운 일로 갑자기 들어왔는데 제일 감사했던 일은 각 선교사님들을 위한 도고팀이 있는 것이었습니다.

이미 저도 저의 방글라데시 기도팀이 있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저는 알지 못했던 기도팀 중 여러분들이 저를 보자마자 호스텔 직원 이름을 말하며 그 사람 잘 있느냐고 안부를 묻고, 또 믿지 않는 저희 부모님 이름과 식구들 이름을 대며 아직도 그러시느냐고... 제 기도제목을 다 외우고 계시는데 얼마나 감사하고 놀랐는지 한동안 가슴이 뜨거워 할 말을 잊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저 혼자 방글라데시에서 일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도고팀 외에 교회와 목사님 성도님들의 기도와 후원으로 그리고 크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역이 진행되고 있음을 알기에 돌아가서 더 겸손히 열심히 사역에 임하겠습니다. 살롬을 전하며 조남혜 선교사입니다.

나의 하나님

# 아프가니스탄을 위하여



나소정(청년부)

사랑하는 우리의 형제요 자매, 딸과 아들들이 아프간에서 탈레반에 피랍된 지 보름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사랑과 도움이 필요한 곳, 무엇보다 복음을 기다리는 곳을 찾아 먼 타국 땅으로 날아간 23명의 청년들은 오래전 예수님의 제자들과 사도들이 행한 것처럼 아픈 사람들의 몸과 마음을 고쳐주고 어루만져 주기 위하여 먼 여정에 오른 것이었습니다. 그곳이 이슬람 근본주의의 본산, 탈레반의 지배하에 있는 곳임을 그들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다만 그들을 사랑하고 그것을 실천하기 위해 그 곳으로 떠났습니다. 이제 이들은 21명이 되었습니다.

아직은 침묵하시는 하나님, 우리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함께 싸우며 기도합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아골 골짜기 한가운데로 나아가 이들의 돌아오는 걸음을 붙들여 주시고, 그들이 무사히 가족과 조국의 품으로 돌아올 날을 속히 허락하여 주시며, 고통의 상처와 아픔으로부터도 자유롭게 하소서. 탈레반의 강박하고 완악한 계획을 돌이키시고 주의 사랑하시는 아들딸에게로 얼굴을 돌리시며 그들의 신음하는 소리에 귀 기울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로 이들과 지금도 구원의 손길을 기다리며 고통 받고 신음하는 아프간의 백성들을 위하여 기도 쉬는 죄를 범하지 않도록 깨어 있게 하시며, 지금도 침묵하고 있는 전 세계 기독교인들을 일깨워 주시사 우리로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하게 하시고 더 많은 사랑과 열심으로 주님의 나라가 이 땅 위에 임하도록 충성하게 하옵소서.

침묵보다 더 무서운 증오와 비난을 쏟는 우리들에게는 용서를 베풀어 주시옵시며 이 모든 분쟁과 어려운 상황을 주관하시사 오직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평화가 임하게 하옵소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생명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시고,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아멘.

전국시민양성 - 2007 여름성경학교 · 수련회

# 가서 제자 삼으라

김인국 (고등부)

이번 수련회를 통하여 저희들은 많은 은혜를 받고 왔습니다. 학생이란 신분이기 때문에 바쁜 방학 중에도 하나님을 영접하고, 비전을 받기 위해 나아갔습니다.



해서 소개하는 시간을 가지고, 조 발표를 위한 준비도 하였습니다. 이런 시간들은 가지고 난 후 어색한 분위기는 사라졌고, 서로를 많이 알게 되었습니다.

수련회 집회 장소에는 시계가 없어서 설교시간이 길었습니다. 하지만 설교시간에 목사님과 선교사님이 전

수련회 주제는 “가서 제자 삼으라” 이었습니다. 고등부 학생들이, 아니 많은 사람들이 전도에 대해서 긍정적인 사고와 전도를 해야 된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방법에 대해서 대부분은 알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러기에 이번 수련회를 통해 아직도 하나님을 영접하지 못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과, 하나님 나라에 동참할 수 있게 믿음을 심어주는 것을 배웠습니다. 전도 교육을 받은 후, 수련회 장소에서 가까운 마을로 이동하여 마을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기회를 가졌습니다.

첫 시간에는 서로의 어색함을 해소하기 위한 프로그램들이 진행되었습니다. 조를 만들어 서로에 대

해주시는 말씀은 저희들의 이목을 집중시켰고, 마음 속에 깊이 새겨졌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하나 알아간다는 것은 역시 새롭고도 은혜로웠습니다.

또한 찬양과 기도 시간에는 모두가 자리에서 일어나 찬양하였고, 서로를 위해 기도를 했습니다. 아직도 그 모습이 눈앞에 선합니다.

2박3일간 저희들을 위해 봉사해주신 고등부 선생님, 대학부 선생님, 목사님께 감사드립니다. 또 이 수련회를 위해 기도해주신 성도님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만민에게 전도 - 전도학교수로

# 변증론 공부를 마치고

박이선 집사 (3교구)

30기 화요전도학교에서 13주 동안 “변증론”을 공부하며 풍성한 성경의 진리에 매료되었습니다. <전도폭발 3단계 훈련교재> <내가 믿는 이유> <허리 굽혀 공감하라> 는 세 권의 책을 섭렵하며 복음에 대한 반대의견을 변증적으로 다루는 법을 배웠습니다.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라” (벧전 3:15) 는 사도 베드로의 가르침대로 기독교 진리에 대한 세속적인 지성의 도전으로부터 기독교 진리를 방어하고 변호하는 능력을 키우게 됨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현장에서 다양하게 쏟아지는 어려운 질문이나 각종 반대의견을 만났을 때 성경적으로 간단하고 논리적으로 대답하기란 그리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나는 성경을 믿지 않아요.” “하나님의 존재를 믿지 않아요.” “지옥이 실제로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선하신 하나님께서 왜 고난을 주시나요?”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 중에 위선자가 많아요.” “교회는 왜 교과가 많나요?” “술, 담배, 제사 때문에 교회에 못가요.” “부활을 믿지 못해요.” “재림을 믿지 않아요.” “성당을 다녀요.” “불교 신자예요.”

이러한 질문에 대해 신속하고 단순하게 성경적으로 대답하는 법과, 전도자 자신의 감정을 통제하고 전도 대상자의 정서를 함께 공감하는 태도로 겸손하고 정중하게 대답하여야함을 배웠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복음을 제시하여 예수님을 믿게 하는데 있음을 명심하고, 오로지 예수님의 탄생과 죽음과 부활과 재림만을 전해야 함을 다시 한 번 마음에 새기게 되었습니다.

어떤 반대 의견도 감사한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 성령께서 대답할 말을 주시도록, 복음의 광채를 비추지 못하게 하는 이 세상 신을 물리쳐 주시도록, 마음속으로 기도하며 전도할 때 복음의 이해를 가능케 하리라고 믿습니다.

## 특별찬양

-영재가 드리는 찬양(2)-

오늘 찬양 예배는 박선영 양(19, 바이올린, 작곡, 박정선 장로 장녀) 이 스스로 준비한 악곡들과 연주를 통하여 찬양 드립니다. 박양은 13세 때에 이미 예술의 전당 영재초청 프로그램에 초청되어 바이올린을 협연 하였고 예원중학교 3학년 때 도미 유학하여 현재는 작곡으로 전공을 바꾸어 줄리어드 음대에 올 9월에 입학한다. 오늘은 박선영 편곡의 '내 주를 가까이' 외에 3곡을 연주한다.

## 장로 가족 수련회

- 8월 15일(수) -

장로가족수련회가 8월 15일(수) 우리교회에서 열린다. 주제는 '양무리의 본이 되라' 로 이종윤 목사, 소의수 목사, 김성봉 목사가 강사로 선다.

### 동정

- 이종윤 목사는 9일(목) 한기총 신학정립을 위한 세미나를 소집하고 연구 발표를 한다. 10일(금) 서울강남노회 전 노회장들을 초청, 간담회를 갖는다
- 개업: 13교구 손지민 성도두레 well-life(건강보조식품) : 508-7817 (은마상가 B163호)
- 특남: 안재명 성도(5교구 박창희 권사 장남) 이은영 성도 가정
- 교역자 하기 휴가  
이규정 목사(8.6 - 8.11)  
대행 서명철 목사(016-329-4054)  
황선철 목사(8.6 - 8.11)  
대행 박광일 전도사(011-709-0086)
- 주간식당 봉사: 도르가 전도회(8.5) 루디아전도회(8.12)
- 금주의 식사 : 김관홍 집사 · 황인숙 권사  
이영주 집사 · 최양혜 권사 가정  
(자녀 결혼을 은혜 중에 마치고)

### 예배 및 집회

구분	시간	
주일예배	I부	오전 9시
	II부	오전 11시20분
	III부	오후 2시
찬양예배	주일 오후 5시	
영어예배	주일 오전 11시20분	
수요예배	I부	오전 11시
	II부	오후 7시
금요기도회	오후 9시30분	
새벽기도회	매일새벽 5시30분	

## 서울 주간기도

● 주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

1. 여름성경학교 · 수련회 은혜롭게 진행되도록
2. 성경 일천독 대장정과 100만인 전도운동 성취되도록
3. 무더위에 온 교회 성도들 영 · 육간에 건강하도록
4. 아프가니스탄에 억류되어 있는 성도들 무사 귀환토록
5. 의와 평강과 희락이 넘치는 국가, 사회 되도록

### ■ 교회오시는 길

